

광주푸른꿈창작학교, 등교길 '생명존중 캠페인' 개최 나서

자기 돌봄·생명 존중 의식·태도 함양하고자 마련

'생명존중 캠페인' 날 지정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광주푸른꿈창작학교가 지난 23일 전교생 대상으로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등교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6일 푸른꿈창작학교에 따르면 이번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등교길 캠페인은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한마디를 작성해 자작나무에 걸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이를 통해 자기 돌봄 및 생명 존중하는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교과 수업 시간을 활용해 '생명존중'

관련 포스터를 그려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생명존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23일을 '생명존중 캠페인'날로 지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 정서 경험을 통한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자 했다.

학생들은 생명 나무에 자신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한마디를 메모지에 적어 붙이면서 다른 학생들과 공감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푸른꿈학교 이계양 교장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때 생명 존중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며 "더불어 학생들의 자해 및 자살 위험 신호를 감지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광주YMCA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LTI(인턴십), 크리에이티브, 그린에너지, 명상, 자전거, 생명평화, NGO와 사회참여, 이동학습 등 다양한 대안 교육 교과목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완도초병설유치원, 성폭력 예방교육 인형극 공연 관람



완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9월 22일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극단 '하늘꿈'의 아

유아 눈높이 맞춘, 교육극단 '하늘꿈' 인형극

동 성폭력 예방교육 인형극 공연을 관람했다. 유아들에게 친숙한 공간인 공원 놀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지려고 했을 때 "안돼요!"라고 크게 소리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공연은 유아들에게 흥미로운 물론 적절한 눈높이로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은 매년 어린이 대상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처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아이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임윤철 원장은 "이번 공연이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능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아가 잠재적인 성폭력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성교육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구례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위한 캠페인



구례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에 청렴리더현장지원단을 주축으로 한 청렴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지원단은 두세명씩 조를 이뤄 상가를 방문하여 생활사를 나누고 교육현장의 청렴정책을 전파하는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활기찬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으며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 지역민에게 청렴한 구례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데 전념하였다.

이용객의 발길이 뜸한 외진 상가에 지원단의 방문은 또다른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반기는 이웃들과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따뜻함을 나누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구례교육지원청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정책과 발맞춰 청렴버스운영, UCC제작 등 활발하게 청렴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교육청 학교지원센터, 학생자치역량 강화 리더십 캠프 운영

초·중학생 학생회 임원 46명 대상

담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초·중학생 학생회 임원 46명을 대상으로 담양 학생자치연합회 학생자치역량 강화 리더십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자치역량 강화 리더십 캠프는 오전에 기존 중학교 임원 20명과 2학기에 새롭게 선출된 초등학교 학생회 임원 28명이 서로 소통과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 진행된 '자치활동의 실제'는 학생중심 학생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하였을 때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즐거운 학교로 만들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이 일제시민주정정책에 항거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학생의날을 각자의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본 후 각 모둠에서 나온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회의 진행 방법을 스스로 배워나갔다는 부분에서 그 의미가 깊다.

리더십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금까지 친구들이 회의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서 회의 진행이 어려웠는데 오늘 배운 방법으로 회의를 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숙 교육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앞으로 학생자치 역량



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순천영재교육원, 진로캠프 운영 실시

순천영재교육원은 24일, 순천영재교육원에서 자연과학영역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진로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선수와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실제로 종이비행기를 접어보고 날려보면서 종이비행기에 숨어있는 공기역학 등 비행기의 원리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는 종이비행기로 오래 날리기, 멀리 날리기, 곡예비행 등 화려한 비행 기술을 선보였다. 똑같은 종이로 접지만 접는 방법과 날리는 방법에 따라



종이비행기의 성능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순천=김승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